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09호 현대불교
2010년 11월 10일(음 10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절대적으로 주인공에게 책임을 전장하세요

오계를 받는 의미

문 이번 에 있을 수계법회에서 계와 연비를 받기를 어머니께서 간곡히 부탁하기에 수계를 신청했는데 오계를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답 여러분은 보이는 데서 오계를 받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여러분의 몸에 마크가 붙은 거와 같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꼭 표시가 있어야 들여보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당장 죽으면 그 마크를 보고서 모셔 가고 그 마크가 없으면 지옥으로 먼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웬만큼 다 서류를 꾸러서 다 해 가지고 검사로 올라가고 검사가 또 해 가지고 판사로 올라가는데, 그 위대한 마크가 있다면 그냥 무사통과거든요, 무사통과.

이게 그런 마크나 똑같아요. 스님네들은 십계를 받지만 신도들은 단 오계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오계를 받게끔 한 거죠. 오계라도 잘만 지키면 그거는 무사통과예요. 못 믿거든 요담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으니 못 보겠지만 요담에 한번 내가 꼭 보겠다 하면 그대로 보여져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도 줘요.

사람은 겉으로 못 보지만 공부한 사람은 다 보죠. 갈빗대가 몇인지도 보고 다 봐요. 가서 펼쳐 놓고 보는 것보다도 외려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천상 꿈이라고 붙여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허허, 이게 또 물이 파도가 치는구나. 주인공, 바람이 불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이렇게 그냥 관한다면, 그게 시적(詩的)이죠.

아주 얼마나 좋아요. '바람만 안 불게 한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선 진짜로 믿는다면 웃음이 나고, 그런 말을 해 놓고도 믿지 못한다면 비웃음 뭉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온통 야단나죠. 그게 어디 진짜 사람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림 · 최주현

선(禪) 사상에 이익이 되려면...

문 선(禪) 사상을 따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아주 자기 취향에 맞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도 없고 악도 없다고 하는 그 선 사상을 어떻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답 옛날에 어느 승가에서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죠. "너, 토시가 옳으나, 부채가 옳으나?"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토시도 옳고 부채도 옳

습니다." 했답니다. 그건 무슨 뜻이나 하면 겨울이 옳으나, 여름이 옳으나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름도 옳고 겨울도 옳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둘 다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러면 큰스님이 열반을 하셔서 지금 다비식을 하는데 돌장승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 그건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그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 이전에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돌장승이라는 그 자체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그 돌장승, 그 진리는 움죽거리지 않는다는 데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는 봄이 온 소식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헤아릴 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지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할 때 선을 누가 봅니까? 선이란 것은 착할 선이 아니라 중심 선, 이것이 거기에 대두되겠죠. 너의 마음에 의해서 너를 채찍질하고 너를 이끌어 가는 너 자체가 부드럽게 다스리고 둥글게 다스리고 자비스럽게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나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선이 옳으나, 악이 옳으나?" 하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저 물을 한 컵 마시든가 주먹으로 법좌를 딱 치든가 그렇게 묻는 사람의 따귀를 훑쳐 때리거나 이렇게 예전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나 하면 '아, 때에 따라선 악도 범하고 선

도 범하는데 네 마음을 네가 다스려서 그저 착하게 살고 네 마음대로 착하게 잘 다스려서 살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악이다 하면 선이 거기 붙고 선이다 하면 악이 붙으니 그거 두 가지 다 빼 버리고 네가 행동하는데 달려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뭘, 거기에 왜 꼬달려요? 선이다 악이다 이러는 데서 꼬달릴 필요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다스렸으면 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행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니깐요.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고 행하는 데 있다고요.

그런데 발원이 되지 않고는 대답이 안 나오죠. 빨리빨리 능통하게 대답도 안 나오거나와 실현을, 실전을 할 수가 없죠. 벌써 한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좀 해야겠다. 왜들 그렇게 하지?' 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한 번이면 족해요. 스스로 그렇게 벌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하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만법의 기준이며 이것이 참나의 삶이며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바로 현재의 이종교란 말입니다. 생명이 불이니까요. 말이 교니까요. 이게 불교죠. 이 불교의 진의가 이러한 겁니다.

병원 같은 데는 가지 않아야 하는지요

문 마음공부를 해 나가면서도 어떤 치료법이라든가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주인공에다 일체 맡겨 놓고서 병원 같은 데는 가지 않고서 오직 주인공만 붙들고 가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답 그거는 이런 게 있죠. 모든 게 한계가 있듯이 아마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접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약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생각에서 아예 그냥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모든 혈기가 통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아, 거기서 기운을 내게 해야지,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가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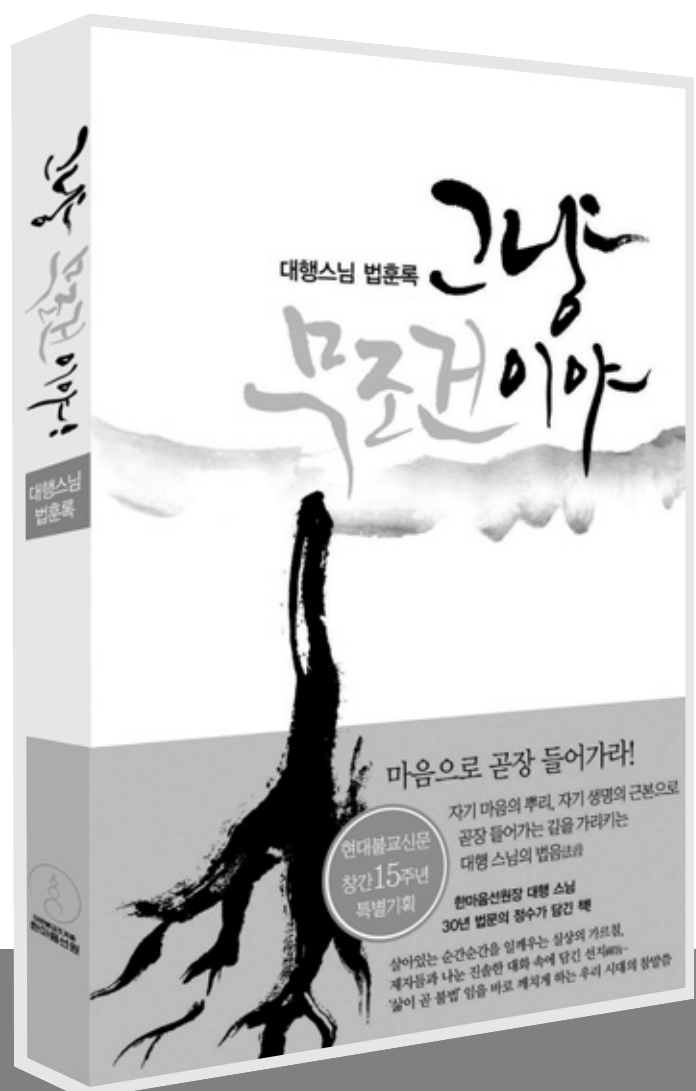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림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일거수일투족 다가오는 대로 근본에다 맡겨야

25면에서 계속

응? 거기서 기를 넣고 해야지. 피가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약도 그냥 부처님한테 자기 성의대로 갖다 놓고는 자기들이 해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을 먹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아주 끊고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지, 근기가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고정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대로 하세요.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병으로 인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피로회복제도 좀, 간장약이 피로회복제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먹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냥 잡수셔도 좋고요.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또 병원에 갈 일이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참서이고, 그것도 법이니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이것이 외려 해가 될 병이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하죠.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니다. 글썽 넓적다리엔 부스럼이 났었습니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거를 악성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는 이렇게 잘라 내고 도려 내고 방사선을 쬐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방사선을 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데 방사선을 쬐 가지고 이 다리 하나가 그냥 이렇게 부었습니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울고불고하며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선량하고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퇴원시켜라. 퇴원시켜 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다른 데로 가서 진찰을 해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쬐는 데서 끌어냈죠. 끌어내 가지고선 얼마를 저거 하다가 그 안의 모든 것이 좀 유해하고 물렁물렁해지고 그런 연에 "야, 병원으로 가라. 이제, 편 병원에, 아주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 보라." 그렇게 했습니니다.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니까 이진 방사선 쬐지 않을 거를 했다 이겁니다. 쬐 가지고는 이제 살이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마비가 되고 자꾸 부어오르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다시 방사선기를 없애면서 수술

을 두 번 했습니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이제 아물기만 하면 된다고, 스님이 그렇게 나오란 말을 안 하셨으면 애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 일에는 가야 하지만 안 같 일에는 안 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데에 바로 그것도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가야 할 건지 안 가야 할 건지 벌써 자기가 먼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니까? 이것은 무슨 기록보다 가톨릭보다 이런 걸 떠나서입니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런 공부를 그냥, 실상 속에서 실현을 하게끔 참선을 가르치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셨지, 무슨 육신을 고쳐 주거나 이런 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문) 제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화목하게 잘 살던 저의 집이 아버지의 주시 눈음으로 갑자기 몰락하고 말았습니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이 사는 게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웬 이렇게 죄가 많고 업이 많아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조금도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더 어려워지고 더 산만해지고 가정은 더 웅성하게 되질 않습니니다. 이 주인공에다 관하시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선 화복지 않은 사람은 화복하게 말하고, 또 안되는 집은 되게 하는 걸로 말하고, 이렇게 갖은 각색의 용도를 자기 스스로 알아서 거기다 맡기시고 아주 편안하게 계세요.

자동차가 '내가 거북하다. 왜 이렇게 죄 박았느냐?' 이런 말 합디까? 운전수가 다 해 놓고 운전수가 다 고쳐요. 또, 안 그러니까? 운전수가 찌그러트리든지 기름이 없든지 해도 운전수가 다 해결하지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 운전수가 해결하고 그 차가 너무 못 쓰게 되면 폐차시키고 다시 새 차를 꺼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이 물질이 없어지면 바로 새 걸로 형성시킵니다. 진화시켜서,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에

의해서 모습과 삶과 이 모든 거를, 자기가 그냥 그 보배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폐차를 시키고 또 차를 새 거를 꺼내도 그 주인공이 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공이 절대적인 책임이요. 책임을 전장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전장을 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놔야 앞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입력이 된 정수에는 누가나 다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대뇌를 통해서 이 정수의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 과거에도 입력이 됐고 지금 현재에도 입력이 돼서 과거에 입력된 게 현실에 자꾸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보죠.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절대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죄가 많다는니 뭐가 어떻

고 나오는지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일도 알고 내일의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된 대로 차레차레로 거기에서 유전성도 나오고 영계성도 나오고 또는 세균성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과성이나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업이다, 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나오는 대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다면 '주인공 감사해!' 하고, 언짢은 일이 생긴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한다면 그대로 그게 대뇌를 거쳐서 입력이 됩니다. 대뇌를 거쳐서 사대를 통하면, 통신이 되면 바로 즉시 잘나에 정수에 입력이 되는 것이입니다.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나올 때 바로 거기다 되 입력을 한다면, '거기다 놓는다면' 하는 소리가 '입력'이라고 합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지. 또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너만이 의사가 돼 줄 수 있어. 너만이 모든 벌어진 일들을 원만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 자기한테 일거수일투족 다 오는 거를 전부 거기다 맡겨 놓고,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잘되는 거는 '감사해!', 잘 안되는 거는 굴러서, 즉 말하자면 '너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 낫게 할 수 있어.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어. 이끌어 줄 수 있어. 해결사가 돼 줄 수 있어.' 이 모든 거를 그렇게 거기다 놓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연방 없 어지고 연방 입력이 되면서 없어지고, 그릇은 항상 빙니다. 그렇게 됴으로써 이것이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나 세균성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 기죠.

아무리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거기에 통하지 않습니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자리는 일체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와 더불어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통신이 되는 통신처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문

제도 거기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근본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도 좀더 늑름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니까.

무명이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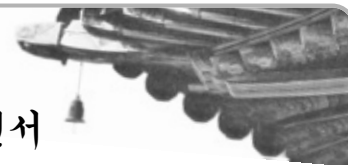
문) 질문이 좀 부끄럽지만 무명이 무엇인지 좀 헛갈립니다.

답) 이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이나 우리들이 켜데기, 주인이 있으면서도 주인의 심부름꾼이 무명입니다. 이게, 이 몸뚱이 자체가 무명입니다.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차원에 따라서 자꾸 쫓고 쫓기면서 이렇게 진화되면서 인간까지, 최고의 동물까지 올라왔죠. 그 진화되는 과정이 바로 무명을 벗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금반지였는데 금방에 가서 금을 다시 녹여 가지고 다시 귀걸이가 된다면서 반지라는 무명을 벗고 귀걸이라는 무명을 또 쓰고 나온 거죠. 이것을 진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벌레도 자기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언짢은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차원이 더 높아 무명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 노릇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아주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니다.

그래서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대천세계의 차원, 중천세계의 차원, 소천세계의 차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얼른 쉽게 말을 하죠. 삼정에 가 보십시오.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놓고, 자기의 차원대로 다. 냄마는 냄마전에 놓고 금은 금방에 있고 사람들도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 모이고 말입니다. 또는 어느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 가진 대로 모이고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이렇게 하듯이, 전부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뒹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노릇을 하다가 자기 차원이 금이다 이렇게 된다면 금방으로 저절로, 누가 가라 오라 할 것도 없습니니다. 그냥 금방으로 가서 모입니다. 이런 건 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을 벗는 것도 무슨, 죽어서나 벗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휴, 언제나 무명을 벗고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이 마음의 무명을 벗어야 진짜 무명을 벗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니다, 이 무명이라는 게요. 아리송하십니까?

모든 것 근본에다 놓을 때
연방 입력되고 연방 없 어지면서
그릇은 항상 빙니다



다스니 누가 그 집을 망하게 했다스니 하거나 가정의 누굴 탓을 한다스나 그러죠. 탓이라는 것도 없습니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상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예요. 아시겠습니니까? 남의 탓 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래 가지고선 그 원망의 진원이 그냥 스스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게끔 만들지 마시고 마음의 반야죽 즉, 자기 운전수에게 모두 맡기시면서 다가온 경계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업장 소멸을 하려면...

문)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에는 정해진 업이 있어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절이나 사경 등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관법을 가르치시는데 업장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요

답)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말하고 행하고 한 그 자체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되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서 현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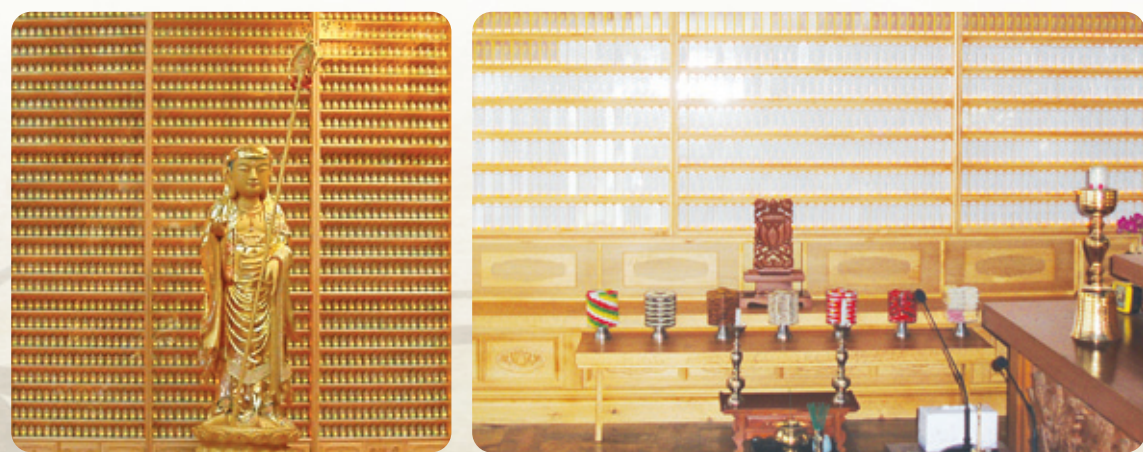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객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번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중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